

등록번호/라-6763

발행일/1995년 2월 15일

등록일/1994년 8월 25일

발행인 및 편집인/이경숙

인쇄인/정종화

발행처/한국여성민우회

100-39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전화/269-5763~5

함께가르여성

1995
2

통권90호



더 높이 날아 더 멀리 보려는 갈매기, 조나단 시걸과 같이 우리도 항상 꿈을 갖고 살아 아름답다.
 새해 새아침, 항상 좋은 날 좋은 아침을 바라는, 소박하나마 그런 꿈들이 모인다면
 세상을 뒤틀리게 사는 사람들이 접손할 수 있는 '95년을 만들 수 있으리라.

2 더불어 한걸음씩

역사발전의 신념을 모아 반쪽의회 바로세울 때

3 이렇게 생각한다. • 고교입시 부활

입시에 바친 청소년시절, 미래까지 어둡다

4~7 특별보고 • 한국여성민우회 제8차 정기총회

더 높이 날아 더 멀리 보자

당산나무되는 우리들 용기를 모아

8~9 문화마당 • 영화속의 성 이야기

욕망과 금기의 경계를 넘나들며

10 한방칼럼⑪ • 성생활

돈 안드는 운동, 성생활

11 어린이에게 권하고 싶은 좋은 책

살아있는 교육, 신나는 아이들

12~13 지방자치와 여성 • 한국여연 '95 지방자치 관련 사업
지방의회 20% 여성의석 확보를 위해

14 진단 • 교육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표류하는 교육방송! 우리들 힘과 지혜로 지켜낼 때

15 함께가는 사람 사람들 • 생협중앙회사업부 양창욱과장
"생활과 협동의 참 뜻을 알리고 싶습니다"

16~17 소개 • '95 민우회 일꾼들

'95년을 빛낼 바람, 바람, 바람들

18~19 지회소식

20 회원이야기

누리는 삶, 빈곤한 삶, 나누는 삶

21~23 생활협동사업부 소식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

24 알림마당

이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역사발전’의 신념을 모아 반쪽의회 바로세울 때...



이 경 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5%가 되면
그 생각을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13% 정도 되면
나머지 인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20%가 되면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제2기 지방의회 시대는
반쪽의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5%, 13%, 20%의
여성들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내기 위한 몸짓이 절대 필요한
1995년 올해입니다.

언 제부터가 틈나는대로 인기있는 책이나 TV를 보곤 합니다. 이는 여러 주부들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연결고리도 되지만, 때로는 일하면서 갖게 되는 위축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식이 뚜렷한 작품들을 보면서 사회정의의 추구나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비판적 대중의 수가 많다는 사실에 힘이 생깁니다. 특히 인기있는 여성관계 책을 접하며 이 책을 읽은 여성들이 우리 민우회의 지지세력이 되거나 미래 회원의 저수지원이거나 생각하면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은 몇명이나 올까?’ 가슴조이며 소모임을 꾸려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갖게 됩니다.

‘역사는 변화, 발전한다’는 이 믿음이 생협초창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끈기의 뿌리가 되었고, 직장여성들의 울분을 씻어주는 샘물이었으며, 개별적인 주부를 지역사회의 주부로 변하게 한 버팀돌이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5%가 되면 그 생각을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13%정도 되면 나머지 인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20%가 되면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성운동 영역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정치분야입니다. 0.9%의 지방의원 진출, 1.3%의 국회의원 진출로 세계 113위입니다. 성폭력 세계 3위(공식통계만 집계한 것임)와 대조를 이루는 셈입니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적 진출은 여성의 삶을 반영하는 척도가 되겠지요.

우리들이 열심히 분리수거한 쓰레기가 재활용되기보다는 그냥 방치되어 있을 때 왜 재활용체제를 구축하지 않느냐 문제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체제에 들어가서 우리의 절적인 삶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감시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한편 주부회원이 많은 우리 단체로서는 주부들의 권익향상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부들이 하는 가사노동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을까요. 현모양처를 주부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현모양처들이 보상받는 역수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수준(전 산업 평균임금의 57%정도)으로 파출부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직업란에 ‘주부’라고 당당히 쓰는 여성보다 ‘무직’이라고 쓰는 여성이 더 많은 현실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개선해가는 단체도 필요하지만 주부의 가사노동이 정당하게 제도적으로 인정받도록 직접 노력하는 여성정치인 또한 필요한 시절입니다.

올해년, 1995년.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5%여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를 바랍니다. 살맛나는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 이어 사무직여성부의 활발한 권익활동이 더 힘차게 뻗어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생협경영 안정화를 토대로 회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한해가 될 것이라 희망하며, 각 위원회의 창조적인 활동이 기대됩니다. 노원-도봉 지회, 서대문-은평 지회에 이어 구로-양천 지회가 아담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그 열기가 따스한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워낙 임대료가 비싸 사무실 마련을 엄두내지 못하고 있는 강남-서초 지회와 분당 지역모임의 발걸음도 분주해진 듯 합니다. 이 모두 지역내 뜻을 같이 하는 5%의 여성을 날줄과 씨줄로 엮어내기 위한 몸짓이라 생각합니다. 이 날줄과 씨줄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지도록 민우회는 또한 「가족과 성 상담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생협을 통해 각 세대의 부엌을 넘나들었다면 상담소를 통해 안방까지 넘나들며 피부에 와닿는 지역여성운동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제2기 지방의회시대를 맞이하여 반쪽 의회가 되지 않도록 딸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지역살림을 꾸려나가고 감시할 여성후보에게 우리 모두 한가지 이상 힘을 보탠다면 6월 27일 당선자로 우뚝 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입시에 바친 청소년시절, 미래까지 어둡다

오 성 숙 회원, 참교육학부모회 관악지부 대표

세 청 일류대의 합격자 발표가 끝나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높은 대학진학률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 내신성적의 상대적인 불리함 때문에 한때는 약간의 기피경향도 있었으나, 요즘 특수목적고 입학이 일류대 합격의 지름길로 인식되면서 웬만한 학원치고 특수고반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들 특수목적고의 입학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대학입시를 겨냥한 과외열풍이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학생,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휘몰아넣고 있다.

자녀의 학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과중현상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나아가 이제는 고교평준화제도를 해체하고 우수 학생들의 수월성교육을 위해 일류고를 부활시킬 것이라 한다.

얼마전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94년에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규모는 17조 4,000억원으로 공교육 투자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우려를 자아내었다. 그러나 사실상 보통의 학부모들이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자녀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단순한 통계수치 이상으로 훨씬 심각하다. 이제 고1, 중2가 되는 아이들을 가진 내 경우도 이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작은 애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가계를 꾸려나갈지 막막하기만 하다. 아이 스스로가 좀더 실력이 좋다는 강사에게서 배워보기를 절실히 원하는데 학원 수강이나 과외가 대학입시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 교과서적 언어에 불과한지를 현실에서 체험한다.

학교교육 따로, 부모경제력에 따라 사교육도 따로 '94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무려 17조 4,000억

학교현장은 전혀 대학본고사의 주관식 출제와 논술고사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무책임하게 대학본고사를 도입하였다. '학교교육 따로, 부모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은 따로' 하는 식으로 우리 교육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당국만 쳐다보고 있었지, 무엇을 했던 말인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지나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데에 모든 교육전문가들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학교교육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교육당국이 이제는 고교평준화제도를 해체하고 고교입시를 부활할 것이라 한다.

지금 중3인 우리 큰 아이는 3년 내내 '아리랑'과 같은 대하

소설도 읽고, 방과후에는 매일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땀에 흠뻑 젖도록 농구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하면서 자유롭고 편한 마음으로 중학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다. (의견을 달리할 분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대학입시 준비는 고등학교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처럼 상대적으로 입시중압감에서 벗어난 중학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준화제도의 덕분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고교평준화가 해체되고 서울의 경우 20개교로 시작해서 점차 고교입시가 전면 부활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한층 더 입시제도의 불속에 옥죄이게 될 것이며 고통당하는 자녀와 함께 학부모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평준화해제는 결국 아이들을 옥죄이고 학부모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뿐

고교평준화 해제론자들은 평준화가 교육의 수월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하향평준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제도는 시행 이후 중등교육의 보편화, 학교간의 극심한 격차 완화, 과열 과외 해소, 고교 재수생의 일소, 고교 학벌 중시 풍토의 완화 등 오히려 우리의 교육적,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많다고 지적되었다. 물론 평준화제도가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자질 및 학습능력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교육여건으로 인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비롯되므로 평준화제도의 해체에 앞서 교육여건에 커다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도 남은 문제는 철저히 설치이념에 맞는 특수목적고의 운영, 능력에 따른 교과별 이동수업 등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우회 회원으로서 지난 1월 26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몇몇 교육단체와 함께 한국여성민우회가 '고교평준화제도 해체에 따른 고교입시 부활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주최한데 대해 무척 반갑게 생각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어려운 교육여건에서 자녀들과 함께 교육의 모순과 문제점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민우회 회원들이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은 비뚤어진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뜻있는 한걸음이 될 것이다.



더 높이 날아 더 멀리 보자 당산나무 되는 우리들 용기를 모아...

조 정 하 한국여성민우회 홍보부장

“민 우회 회원! 우리들은, 하나 스스로 서는 여성입니다. 하나 생활과 일터의 주인입니다. 하나 환경을 생각합니다. 하나 새시대를 열어갑니다.”

지난 1월 21일 어머니노래패 〈소리타래〉가 띄우는 잔잔하고도 힘찬 여성노래와 노원-도봉 지회 〈비디오모임〉에서 회원들이 제작한 「우리 살림, 우리 손으로」를 감상하며 서로 만남을 반기던 회원들은, 개회선언과 애국의례에 이어 「민우회 회원! 우리들은…」을 힘찬 목소리로 회원으로서의 정체감을 다지며 제8차 정기총회의 막을 올렸다.

“올해 1995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맛본지 고박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분단의 고통으로 아픔을 겪은 햇수이기도 하지요. 여러가지로 의미깊은 올해를 열며, 저는 우리 여성민우회가 할 수 있는 뜻깊은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물자교류에 우리들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맛종기로 유명한 이북의 신덕샘물과 우리의 무농약쌀을 맛바꾸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주도의 꿀과 이북의 명태 등 남북의 특산물을 서로 나눠먹는 꿈을 우리 돼지해에 실제로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한명숙 지도위원(3~4대 회장)의 격려사를 모두들 의미있게 되새기며, 315명 총회 구성원 중 참석 96명, 위임 67명으로 총회

개회를 위한 정족수(구성원의 과반수 158명)를 무난히 채운 뒤 회원들은 본격적으로 의안심의에 들어갔다.

회원들은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보고서를 미리 검토하고 참석했기 때문에 '94사업에 대한 승인절차는 별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결산안 역시 이금라 공동대표의 설명에 따라 방대해진 민우회의 살림을 실감하면서 몇가지 확인사항을 짚은 뒤 인준을 끝내었다.

이어 '94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짚어진 내용은 크게 두가지. 여성인권사업의 부재와 내부 조직적으로 주부회원들의 활동과 사무직 회원들의 활동이 서로 공유됨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두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의식과 고민없이 진보적인 여성운동단체로서 가장 큰 대오를 이루고 있는 현재 민우회의 위상과 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고, 그 보완을 위해 민우회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고 기획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고민을 모아나가는 게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제안까지 결들인 감사보고.

여성인권사업의 부재가 서너해를 거듭하며 총회 자리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짚어지는 사실은 실로 부끄러운 일. 해마다 다른 우선사업에 밀린 결과이기는 하나 민우회가 진보적인 여성운동단체로서 제 몫을 충실히 해내고자 할 때 '95사업

에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회원들은 실감하였고, 두번째로 지적된 조직 내부의 통일성이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 또한 의미있게 받아들였다. 한 단체안에서 사업내용과 조직대상이 갖고 있는 차이가 서로 힘을 얻는 체계로 정립되어야만 '87년 창립이후 지금까지의 발전과정보다 한 단계 높은 발전을 할 수 있겠다'는 감사의 애정어린 비판을 회원들은 깊이있게 받아들이며 감사내용을 승인하였고 이어 '95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95년의 중점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방향하에 사업이 짜여졌다.

오는 6월 27일로 예정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전체 사회운동 속에서 갖는 무게 그리고 그 결과가 가져올 사회변화의 양상을 비중있게 고려한 고민이고 또한 전체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 민우회가 담당해야 할 몫과 함께 지역여성운동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해내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몇가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민우회가 만들어갈 '95년의 모습을 그려보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표 참조)

가장 큰 흐름은 물론 6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기초의회에 출마예정인 후보가 2명(김은경, 최찬애 회원), 광역의회에 출마예정인 후보가 2명(이금라, 홍미영 회원)으로 민우회는 이번 선거에 후보전술이라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결합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 또한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움직일 계획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펼쳐질 시점에서 지역여성운동체로서 기반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간화와 여성들의 권익확보를 꾀하려는 민우회의 조직목표를 볼 때 의정활동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참여를 계획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음으로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은 「(가칭)가족과 성 상담소」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일. 1년여에 걸친 체계적인 준비를 밑받침으로 3월말 개소를 앞두고 있는 상담소 사업은 민우회내 부설기구로서 그 조직체계를 정비하게 된다.

민우회 다른 사업과의 발전적인 결합 그리고 여성운동 차원에서 상담소가 담당해야 할 역할 등 전체적인 흐름은 현재 상담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은희 지도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그 책임을 맡고, 상담소의 세부적인 사업 등 실제적인 운영책임은 서대문-은평 지회의 양혜경 대표가 상담소장으로 그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부부간의 갈등과 부모-자녀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두 차례의 공개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4회에 걸쳐 상담원교육을 진행, 상담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내부 전문인력을 키워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외에 사무국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조직부의 주요사업은 현재 4개 지회(강남-서초, 구로-영등포-양천, 노원-도봉, 서대문-은평)와 분당 지역모임을 중심으로 회원확대와 조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작년('93년)부터 각 지회별로 개최하고 있는 민우여성학

〈'95년 한국여성민우회 월별 사업계획〉

월	사업계획
1	● 제8차 정기총회 ● 「함께가는 여성」 발행(매월) ●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정착을 위한 회원 모니터링활동
2	● 각 지회별 '공동체 회원 간담회' ● 모니터위원회 「어린이 방송학교 보고집」 발간 ● 모니터위원회 연대활동 '교육방송 전단 제1차 시민공청회' ● 「가족과 성 상담소」 상담원 제1기 4차 교육 ● 사무직회원 월례회(매월) ● 계간 「사무직여성」 겨울호 발간 ● 심포지움 '시간제 노동의 실태와 정책방향' ● 생협 소개교육(매월, 수시로)
3	● '3.8세계여성대회 기념 한국여성대회' 참가(12일) ● 「가족과 성 상담소」 개소식 및 '가족이야기 한마당' 개최 ● 「종량제를 감시하는 녹색주부모임」 발간식 및 세미나 개최 ● 회원 미디어특강 '케이블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어머니노래패 〈소리타래〉 노래책 발간 ● 주부풍물패 〈단비〉, 거리굿(연 30회) ● 고용평등 모니터위원회 발족 ● 사무직 신입회원 교육 ● 사무직회원 워크샵 ● '신기술 도입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4	● 「가족과 성 상담소」 상담원 제2기 1차 교육 ● 각 지회별로 '민우여성학교' 개최 ● 환경위원회 「아젠다 21」 발표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확보를 위한 여성인권사업 ● 계간 「사무직여성」 '95년 봄호 발간
5	● 모니터위원회, 6.27 선거보도감시활동 ● 각 지회별로 장터, 요리강습회, 생산지 및 일손돕기등 실시 ● 사무직회원 회지 「정다지기」 발간 ● 직장인을 위한 성문제 지침서 단행본으로 발간 ● 노동조합 여성조직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6	● 6.27 선거 후보출마 및 선거지원활동 ● 맞벌이부부를 위한 특강
7	● 「가족과 성 상담소」 상담원 제2기 2차교육 ● 계간 「사무직여성」 여름호 발간
8	● 「가족과 성 상담소」, 성폭력 상담원 위탁교육
9	● 한국여성민우회 창립 8주년 기념행사 ● 사무직 신입회원 교육 ● 워크샵 '노동조합과 여성간부'
10	● 「가족과 성 상담소」, '열린 가족 대화의 날' 공개행사 개최 ● 모니터위원회 과제작업 ● 임시직 노동자를 위한 지침서 발간 ● 계간 「사무직여성」 가을호 발간
11	● 「가족과 성 상담소」 제2기 3차교육 ● 어머니노래패 〈소리타래〉 노래발표회 ● 주부 신입회원 교육 ● 사무직회원 회지 「정다지기」 발간
12	● 모니터위원회 「제2기 어린이방송학교」 개최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연말잔치

교를 비롯 문화강좌 등 교육사업과 공동체 간담회, 장터, 생산자 견학 및 일손돕기를 지회 특성에 맞추어 실시 하고, 중앙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송년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후보 출마지역인 노원-도봉 지회의 경우 상반기에는 지방의회선거에 집중적으로 투여할 계획이고, 또한 하반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담소의 지역내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홍보부는 대외 선전사업을 효율적으로 펼쳐 민우회를 집중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부사업을 잡았다.

환경위원회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환경 실천지침을 담은 '아젠다 21'('92년 지구환경회의에서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작성하기로 결정된 실천 강령)을 작성하여 여성운동에서 접목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운동의 영역을 명확하게 자리매김해 보고자 한다.

모니터위원회는 다매체다채널시대라는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회원들과 미디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케이블TV시대에 대한 이해의 장을 회원들에게 공개교육으로 마련하고, 6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대한 모니터 활동 그리고 '어린이 방송학교' 및 워크샵 등이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한 타단체와의 연대사업으로 2월에는 '교육방송의 바람직한 역할'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인권사업으로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세, 증여세 등과 관련하여 자료집 발간과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화위원회의 풍물패(단비)는 예년과 같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줄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대한 후보들의 지원사업에 적극 결합하고 거리거리에서 일반인들에게 민우회를 알려나가는 궂판을 약 30여회에 걸쳐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의 공연을 야심차게 기획할 예정. 노래패 <소리타래>는 가족내 건강한 노래문화의 정착을 위해 6개월여에 걸친 신중한 선곡작업끝에 '소리타래의 노래바구니'라는 노래책을 발간할 목표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연말에는 노래발표회를 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부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함께가는여성'은, 명실상부하게 민우회 기관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충분히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사무국 부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영역으로 이전되었다.

생활협동사업부는 회원들의 고충이나 의견, 제안사항에 귀 기울이는 운영체계 확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잡고 있다. 회원들에게 한발 가까이 다가가는 충분히 '열린 생협'으로 자리를 잡겠다고...

사무직여성부는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정책대안단체로서의 위상정립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여직원회의 여성간부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통한 지원활동을 충실히 할 계획이고, 미조직 사무전문직여성, 예비취업자 등 여성대중을 향한 선전과 교육을 체계화시킬 예정



이다.

예년과 달리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고용평등 모니터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들의 직장내 고용평등상황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모임을 구상중이고, 월례회를 지금까지의 강의방식에 주제를토론방식으로 선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맞벌이부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간 사무직여성'은 내용을 한걸 대중적으로 풀어 독자층을 확대하며 '직장인의 성 트러블, 이렇게 풀자'라는 제목으로 성문제 지침서를 발간하고자 한다. 연말에는 '평생평등 일터를 가꾼 여성들의 한마당'을 노래공연과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꾸며볼 생각이다.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에 이어 상담소 사업에 대한 보고와 평가가 있었고 작년 회원들의 활동에 서로 기쁨으로 격려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우수공동체상으로 뽑힌 공동체는 다음과 같다. 최다매출상에는 낙성대 교수아파트 공동체가 기쁨을 누렸고, 각 지회별로 한 공동체씩 선정한 두루두루열심공동체상은 강남-서초 지회의 잠원 그린아파트 공동체, 구로-영등포-양천 지회는 염창 우성아파트 공동체, 노원-도봉 지회는 중계 주공아파트 공동체, 서대문-은평 지회는 무악 청구아파트 공동체, 분당 지역 모임에서는 아름마을 건영아파트 공동체가 영광을 안았다.

아기자기나눔공동체상은 당산 현대아파트 공동체가, 그리고 생협사무실에서 주는 '도우미' 상에는 김포 길훈아파트 공동체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함께가는 회원상에 정대은 회원과 이영인 회원이 뽑

더 높이 날아 더 멀리 보려는 갈매기! 조나단 시걸의 꿈처럼
 '우리 사회의 인간화'라는 드높은 꿈을 향해
 민우회가 끌어안아야 하는 고통은 과감하게 끌어안은 용기를 모아야겠다.
 스스로 서는 여성들, 2,000여 회원들의 머리맡엔 지혜와
 우리 사회의 당산나무 되는 용기를 모아야 할 때다.

힘의 영광을 안았다. 단체상으로는 모니터위원회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와 사무직 조직위원회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고 '멋있는 남편상'에 이병석(이성미 회원의 남편)씨와 임병훈(최찬애 회원의 남편)씨가, '멋있는 애인상'에는 김병오(최운선 회원의 애인)씨가 뽕혀 회원들의 격려 속에 '94 멋있는 남편'으로 뽑혔던 정원준(김은경 회원의 남편)씨가 상을 수여하는 연출로 한바탕 모두들 신나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이어 민우회에 평생회원으로서의 애정을 보여준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타 몇가지 광고사항 등 남은 프로그램을 간단히 마무리한 뒤 회원들은 사무실에 마련된 즐거움 다과와 함께 '민우회원들만이 즐길 수 있는 기쁨'으로 캄캄한 저녁나절을 보내었다.

총회 참석 선물로 받은 우리밀라면은 또하나의 즐거움. "어? 무슨 라면 욕심?" 이옥경 지도위원(전 부회장)의 양손엔 주렁주렁 라면보따리가 세개. 무려 열두개의 라면이다. 팔 팔대며 웃어대자 "애, 좀 봐주라. 우리집은 토요일만 되면 항상 라면이야! 애들이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 욕심을 부릴래서가 아니라 어찌하다보니(다른 회원들에게 줄려고 들고온 것) 그렇게 됐는데도 어정쩡한 변명. 사실 세상욕심 하나 없는 사람들만이 부릴 수 있는 소박함이라 그저 웃음이다. 아마도 이날 회원들의 저녁식탁은 라면냄비 하나 달랑 올려놓고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가족들에게 한참 이야기했을 것이다. 교육도 시키고 식사준비도 안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이번 한국여성민우회 제8차 정기총회는 여성들의 정치참여

를 위한 행동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내실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들이 공유되는 자리였다.

새로 신설된 집행위원회와 기획실은 민우회의 사업과 조직을 항상적으로 고민하고 체계를 바로 잡아나가는 구조. 지은회 사업감사의 제안대로 조직내부의 통일성을 고민하고 담보해 내리란 기대도 서슴치않게 해본다.

더 높이 날아 더 멀리 보려는 갈매기! 조나단 시걸의 꿈처럼 '우리 사회의 인간화'라는 드높은 꿈을 향해 민우회가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고통은 과감하게 끌어안은 용기를 모아야겠다. 2,000여 회원들의 머리맡엔 지혜가 결국은 이루어내리란 믿음에 아픔보다는 설렘이 앞선다. 스스로 서는 여성들! 우리 민우회 회원들이 우리 사회의 당산나무되는 용기를 모아 나간다면 말이다.



● '95 함께가는 여성상(賞) 수상소감

정대은



부담스럽다. 정말 부담스럽고 찝찝하다. 지난 목요일 동생네 애봐주느라 못나간 생협회의도 찝찝하고, 갑자기 일이 생겨 빠진 편집회의도 끈질기게 마음 걸리거려린다. 예전 같았을 '할 수 없지 뭐' 하고 지나쳤을 텐데, 상이 뒤길래 난 어제 저녁 머리 감다 말고도 가슴 한구석이 찢끔거리 괴로왔다. 상 괜히 줬다고, 아니 아예 잘못 줬다고 욕하지나 않았을까 싶어서.

총회 전 우수회원상을 받게 됐으니 꼭 참석하라는 전화와 실갱이를 하다 끊었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덜렁 한마디 던졌다. "뭘 했다고 상을 줬?"

잔뜩 풀이 죽어 있는데 무릎을 탁 치면서 덧붙였다.

"그래! 맞아. 일 하나 안했는데 상 주는 건 뻔하다. 당신 손가락으로 받고 덤프트릭으로 주게 생겼네. 일 좀 잘하라고 주는 거겠지"

이 정도니 총회가서 떡이며 과일 놓고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이었다.

해마다 총회에서 새로운 결심을 다지곤 했다.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결심만 매년 되풀이하고 난 늘 제자리걸음이다. 사무실 갈 때면 반갑게 맞아주는 민우회 식구들이 늘 수고한다고 추켜주니 정말 뭉하고 있나부다 들떠 있다가 돌아서 생각하면 내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나이만 자꾸 한살씩 늘어날 뿐. 그리고 보니 30대에 들어서면서 민우회랑 같이 지냈으니 어느새 햇수로 6년이 되었다. 그저 받기만 하고 준 것은 하나 없는 부담스런 이 친구에게 올해는 정말 뭉 하나 줄 수 있어야 되텐데! 아, 정말 부담스럽다.

욕망과 금기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무직여성부 계간 「사무직여성」 편집실



남 녀가 만난다. 그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신혼 첫날밤 비로소 성적인 결합을 한다. 아이를 낳고 살면서 평생토록 아내는 남편만을,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한다...

이상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한쪽에는 첫날밤에 부른 꿈을 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젊은 여인을 안고 쾌락을 즐기는 결혼한 남자, 강간을 당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여자, 성을 사고 파는 남녀가 있다.

일상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상적인 성'이 아니면 입을 다문

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무엇인가? 성에 대한 금기는 절대적이지 않다. 사회마다 다르고 개인에 따라 다르며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도 변한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성을 다루는 영화에 대한 검열이 상당히 심했었다. 지금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성은 사회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가위질 당한 영화를 볼 때가 많다. 금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들은 성행위, 사랑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정신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대부분은 아직도 성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영화에는 꿈이 있다. 통념을 깬 자유, 극단적이고 악마적인 행동, 유치할 만큼 동화같이 행복한 이야기,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장면 성문제에 대해서는 영화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주 많다. 성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협소하고 폐쇄적인 만큼 영화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에 대한 영화는 많다. 아니 어쩌면 모든 영화가 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는 성을 무대위에 올려놓고 있는 많은 영화 중에서 진정한 성과 사랑에 대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거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영화 몇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영화들을 보면서 내가 나를 가두고, 너와 나의 경험을 가두던 편견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 속에 묻어 두었던 의문들을 되새기면서 친구들과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데미지

「데미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랑, 소위 '불륜' 이야기를 통해 죽음과 파멸에 이를 만큼 강한 걱정 속에 휘말린 사람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이다.

플레밍(제레미 아이언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고위관료이며, 가정에서는 권위있는 가정으로 귀족적인 삶을 사는 중년의 남성이다. 어느날 그는 안나(줄리에트 비노쉬)를 만나면서 인생에서 도박같은 게임을 시작한다. 그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열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자신에게는 그런 열정을 이끌어 갈만한 자력이 없다고 느끼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게다가 그녀는 아들의 연인이었다. 플레밍은 그녀를 독점하고 싶지만 그녀는 아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준다. 아들을 질투하면서도 그녀에 대한 열정은 타오르기만 한다. 그러나 그들의 정사장면이 아들에게 목격되면서 둘의 관계는 세상에 폭로된다. 플레밍은 위험한 도박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족과 사회적 지위를 잃는다. 안나조차도 그의 결을 떠나면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버지 플레밍의 사랑도, 아들의 사랑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던 안나는 그 누구보다도 '성의 금기'로부터 자유로웠던 여성이 아닐까?

명예로운 남성으로서 갖고 있었던 모든 현실적인 것들을 잃고도 결코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게 여기지 않는 플레밍의 마지막 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해도 좋을 사랑과 해서는 안되는 사랑의 경계는 절대적인가?

루이말 감독, 줄리에트 비노쉬, 제레미 아이언스 주연

아름다운 시절

얼마전에 개봉되었던 스페인 영화, 한 젊은 남자의 여성편력을 통해 인간의 관능과 애욕이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영화 중의 하나다. 데미지가 죽음과 파괴에 이르는 성을 그리고 있다면, 이 영화에서 성은 젊음과 열정, 그리고 화해와 꿈으로 묘사되고 있다.

1931년 스페인은 군주의 시대가 끝나고 희망과 혼돈이 뒤섞여 있었다. 젊고 이상주의자인 탈영병 페르난도는 시골길을 헤매다가 사려깊고 위트가 넘치는 늙은 화가 미놀라를 만나 그의 저택에서 머물게 된다. 그날 밤 미놀라는 페르난도에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세번의 좌절이 무엇이었는데를 얘기해준다.

"첫째는 이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 둘째는 평발로 인해 군대에 가지 못해 탈영을 해보지 못한 것. 셋째는 바람을 피워보지 못한 것이지. 난 일종의 역설적인 존재야. 교회, 군대, 결혼제도를 거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반골. 이단자. 난봉꾼이 되어 늙은 겁쟁이 브루조아로 살고 있지"

역설적인 삶을 살아온 미놀라에게는 딸이 넷 있다. 첫째딸은 젊은 과부. 둘째는 여자인 것에 늘 불만스러워 하는 중성적인 여자. 셋째는 바람둥이. 넷째는 순진하고 귀여운 아가씨이다. 젊은 탈영병 페르난도, 미놀라와 그의 네 딸, 그리고 미놀라의 아내 아말리아, 아말리아의 정부 댄글라드. 이들은 혁명과

전쟁이 스페인의 도시를 휩쓸고 있을 때, 미놀라의 시골집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낸다.

페르난도 트루에바 감독, 페밀로페 크루즈, 조지 산즈 주연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앤(앤디 맥도웰)은 남편의 살이 닿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섹스를 즐기지 않으며, 또 섹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앤은 그런 자신의 불감증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한편 그녀의 여동생 신시아는 언니와는 다르게 성 그 자체를 만끽하며 언니의 남편과 섹스를 즐기기에 이른다.

앤은 남편의 친구인 그레이엄을 만나면서 진정한 대화의 상대를 만나게 된다. 그레이엄은 9년전 사랑하는 여인 엘리자베스와의 관계에서 진실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발기 불능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왔다. 그레이엄은 9년간 많은 여성들을 비디오로 찍는다. 비디오에는 그녀들의 성과 사랑, 그녀들 내부에 감춰진 욕망들을 그들 스스로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 그레이엄은 비디오를 통해 타인과의 단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섹스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불구가 된 성을 충족시키기도 한다. 신시아도 비디오 앞에 선다. 그리고 성으로부터 느낀 허무와 그녀에게 있어 성의 의미들을 고백한다.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면 신시아, 앤, 앤의 남편, 그레이엄 등 등장인물 모두가 자신의 성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동일한 빈 자리를 느끼고 있음이 부각된다. 결국 그레이엄도 앤에 의해 비디오 앞에 서게 되고 해체되었던 자신을 찾게 되고 앤과 그레이엄은 진정한 관계를 위해 손을 잡는다. 이 영화는 쾌락적이고 거짓되고 소외된 성과 사랑의 모습을 넘어서기 위해서 성과 사랑이 담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성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앤디 맥도웰 제임스 스페이더 주연

● '95 함께가는 여성상(賞) 수상소감

이 영 인



'94년을 마감하고 '95년의 계획을 결의하는 총회날, 저는 많은 회원들 앞에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사무직 우수회원상을 받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상패에는 '함께가는여성'이라고 새겨져 있더군요.

그러나 부끄럽습니다.

복직이 되었습지만 변함없이 아침청소와 커피 심부름 등을 거부하지 못한 채 해야 하고, 임직원들은 잔업무가 직원 모두의 일이 아닌 여직원 전담이라는 인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공식을 붙들고 공공대는 학생처럼 무척 조바심합니다. 꼭 해결돼야만 하는 숙제이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문제를 풀고자 하시는 분 안계시는지요?

여러분과 같은 길에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말하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성문제에 관한 것들을 알게 하고, 모두 하나되어 행진하는 길에 힘찬 발돋움할 수 있게 해주신 민우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돈 안드는 운동, 성생활

이 명 호 남강한의원 원장

이제 민우회원과 많이 가까워졌으리라 생각하고 좀더 솔직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하루에 몇명은 눈물을 글썽이며 한숨을 쉬다 가는데 그 고통의 매듭을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아픈 사람의 육체적 고통의 일부는 정신적인 원인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의 정서적·육체적 갈등이나 유대감의 결여가 병을 만들거나 또는 회복을 막고 있다.

조화로운 결혼생활은 서로에게 상처나 좌절을 주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며 의견존중도 잘 이루어지고 성생활 또한 원만하다. 이와는 반대로 겉으로 드러난 부부간의 정서적 대립이나 마찰의 내부 속에는 육체적 갈등과 성적인 불만족이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대가 나를 믿어주는 신뢰감, 보살핌과 애정을 받고 있을 때 생기는 자신감 등은 돈이 없어도 조금의 배려만 있다면 말썽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애정의 표현인데도 부부간에 이를 소홀히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다 알 것이다. 애정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아이는 나서부터 계속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면서 어른들은 결혼만 하면 연애시절의 그 열정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돌보기를 게을리하며 배우자 탓만 한다. 사랑은 물주고 키워야 하는 나무와 같고 결혼은 겨우 싹을 피운 것에 불과하여 긴세월 비바람을 막고 키우는 것은 두사람에게 달려있다.

여자는 결혼만 하면 젊은시절 자신에게 쏟던 관심은 간데없이 자식과 남편만 외우고 산다. 또한 사회가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모성본능과 현모양처를 요구하여 희생적인 어머니상에 주눅들게 만든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아이 우선이다보니 성적인 노력이나 개발은 포기한다.

성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살림살이는 잘 알면서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은 무지이다. 남녀 모두 성적이지 않은 피부접촉을 진실로 좋아한다. 스킨십은 친근감, 이해감, 유대감을 높여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꼭 성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남자는 남자답게 씩씩하게 키우기 위해 피부접촉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섹스와 피부접촉을 동일시하게 되어 성관계가 아니면 스킨십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여자는 자라면서 인형놀이나 몸치장을 통해서 접촉 자체가 즐거움과 만족감의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남녀간에 접촉관이 달라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둘 다 애정결핍을 느낀다. 그래서 고립되고 외로운 현대인들은 부족한 스킨십을 배우려 사람대신 애완동물을 더 요란스럽게 키우는지도 모른다.

배우자 앞에서 늘 허름하고 부시시한 몸차림을 보이는 것은

성적인 무시나 거부의 표시라 한다. 무의식적이라도 상대의 접근을 막으려는 몸짓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도 계속 남편이 당연히 아내에게만 성적인 관심을 가지리라 믿음은 착각이다. 운동이나 마사지 등으로 자신의 육체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기분좋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



고대 그리스 학자의 풍자 속에 결혼은 청부업이라고 했듯이 성생활도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될 중요한 결혼의 요소이다. 대부분의 부인들이 자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원해서 마지못해 응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관계는 자신이 원하면 안되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요조숙녀로 보이려고 내숭을 떠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흥미를 잃었을 경우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부부관계를 즐겁게 열심히 하면 군살도 빠지고 운동도 되고 애정도 두터워지니 잘 할 연구나 하라고 웃으며 얘기한다. 과거에는 몰랐다고 성을 알고자 하는 것은 포르노영화를 찍자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의해 존중되고 담혀졌던 세계 속으로 같이 탐험을 떠나는 것이다.

아직도 내가 남자인 줄 아는 회원이 많겠지만 여한의사인 나도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둘 낳으면서 순산약과 몸조리약은 먹었지만 느슨해진 질과 주위근육이 무력해진 것은 다 그러려

니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대학에서 부인과 교수님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 친정어머니도 모른척하시고 누구도 귀찮게 준 적이 없었다. 산후에 갓난아기 돌보라 몇배로 늘어난 일거리에 빠져 살다 나이들어 보니 중고가 되어 버렸다. 무엇이든지 재활용하고 재생하는데 운동으로 근육단련쯤이야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만족한 성생활을 위해서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다.

등과 허리근육을 강화시키고 군살도 빼기 위해서 반듯이 누워 다리를 곧게 뻗은 다음 등과 허리근육에 5초간 힘을 준 다음 다시 5초간 힘을 빼기를 10회 반복한다. 다음에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같이 수축시켜 5초간 힘을 주고 5초간 쉬기를 10회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굽혀서 다리를 넓게 벌린 다음 항문과 질근육을 대변을 참듯이 5초간 수축하고 다시 이완시키기를 10회 반복한다. 시간 있을 때마다 앉았거나 서있을 때도 이와 같이 응용해서 할 수도 있다. 또 소변을 볼 때

조금씩 멈추면서 내보내는 훈련을 하면 질근력이 붙게 된다. 맨발로 집안에서 돌아다닐 때 뒤꿈치를 들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걷는 것도 효과적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많이 배우는데 초보시절엔 60을 넘는 고상한 할머니가 부부관계가 예전처럼 좋지 않다고 호소하거나 70 넘은 할아버지가 정력이 그전만 못하다고 하실 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서적으로는 어안이 병병했었다. 지금은 노년기의 성 또한 점잖음으로 감춰지고 억압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혼도 일종의 비즈니스이다. 사랑은 사랑으로써만 교환되고 믿음은 믿음으로써만 보답받는 그런 프로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 고마움의 표현, 배려, 웃음, 공상, 훈련, 스킨십을 충분히 활용하기를 바란다. 

어린이에게 권하고 싶은 좋은 책

살아있는 교육, 신나는 아이들

첫아이 학교 보내기

아이를 학교에 처음 보내는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1학년을 가르쳐 본 선생님이 이야기식으로 엮었다. 주순중 지음

옛이야기 들려 주기

아이들에게 어떤 옛이야기를 골라서 어떻게 들려 줘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다시 쓴 옛이야기 12마당이 실려 있다. 서정오 지음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잘못된 글짓기 지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글쓰기 교육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오덕 지음

조그마한 내 꿈 하나

철학 교수가 느낀 교육 문제들과 실험학교를 만들기 위해 작은 꿈을 가꾸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윤구병 지음

선생님 우리 연극해요

선생님들이 왜 아이들과 학교에서 연

극을 하는지 학급을 꾸려가는 데 연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김용심 지음

살아 있는 글쓰기

글쓰기 지도 방법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기글을 들어 상세히 풀이하고 있다. 이호철 지음

재미있는 숙제, 신나는 아이들

공부를 하면서 생각도 키울 수 있는 재미있는 숙제 37가지 사례가 생생한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이호철 지음

살아 있는 그림 그리기

화가들조차 놀라워하는 이호철 선생님 반 아이들의 그림 180여 편이 상세한 지도방법과 함께 실려 있다. 이호철 지음

새봄이와 함께 일기 쓰기

일기를 쓰려고 해도 쓸 거리가 없다고 하는 아이나 도무지 일기를 쓸 엄두를 못 내는 아이들이 읽고 일기 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엮었다.

이새봄 글, 이성인 엮음

왜 나를 미워해

동무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동무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한 아이의 이야기다. 이 아이를 6년 동안 지켜본 선생님이 쓴 실제 체험담이다. 요시모토 유키오 지음, 김미혜·황시백 옮김

보리 아기그림책 세밀화 시리즈 1

어린이들을 위한 세밀화 그림책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감수성 발달을 돕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 가을에 먹는 과일, 봄에 좋은 채소, 집에서 기르는 동물, 산에서 사는 동물로 4권이 구성되어 있고 벽그림 2장이 함께 들어 있다. 도서출판 보리 기획·편집

보리 아기그림책 세밀화 시리즈 2

우리가 먹는 곡식, 여름에 먹는 과일, 들판에 사는 곤충, 물가에 사는 동물로 4권이 구성되어 있고 벽그림 2장이 함께 들어 있다.

참다운 지방자치는 우리를 생활속에 뿌리내려가는
민주주의와 그 생명을 같이 한다.
이는 또한 여성들의 힘이 조직적으로 뒷받침될 때
거듭 새로이 태어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번 6.27 지방의회 선거에 맞서 여성운동계의
힘과 의견을 모으고 펼쳐나갈 한국여성단체연합의
'95년 지방자치관련 사업을 짚어 본다.

— 편집자

여성의 정치참여, 세계 최하위 불명예 딛고 지방의회 20% 여성의석 확보를 위해

조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 부장

오는 6월 27일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날이다. 이 선거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단체장과 의회의원, 주요 시도의 시장 및 도지사, 광역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지난 '91년 제1기 지방자치선거와는 달리 의회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한국의 정치역사상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행 지방자치 관련법이 주민자치를 보장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자치의 실시는 우리 여성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의 힘을 모아 후보를 발굴, 교육·훈련하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은 '94년도 중점사업은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정하고 '95년도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의석 20% 확보를 목표로 활동하여 왔다. 이는 유권자의 51%에 달하는 여성주권의 대표성을 확보해내기 위한 사업들로, 지방자치시대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야말로 생활 정치로의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는 사회적 여론화에 특히 주력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현재의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여성의원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자치 3년: 0.9%의 도전' (1995. 5.27. 지역운동가 여성의원의 평가토론회)은 0.9%밖에 안되는 소수의 여성의원들이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끌어모으고 공개적인 합의를 통하여 생활정치를 실현하였던 구체적인 사례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회적 여론화를 넓히기 위한 또하나의 작업은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를 조직하여 여성 정치참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여연을 비롯한 전국 50개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아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구성하고, 그간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왔던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로서 여성할당제를 요구하는데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러한 활동들은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그간 단체별로 자기 과제를 가지고 지역운동을 헌신적으로 하여온 사람을 중심으로 후보를 발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발굴한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각종 선거실무 등에 관한 교육, 훈련의 과정은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조직적인 결의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여성 정치참여의 실질적 확보는

조직적인 힘으로 뒷받침되어야

94년 한해 동안 27개 회원단체와 함께 진행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의 결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95년도 제9차 정기총회에서 '여연의 후보'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일년은 우리의 후보를 찾아내고 후보와 우리 자신을 함께 교육, 훈련함으로써 선거대응을 위한 전체조건을 마련하는 한해였다면, 올 일년은 찾아낸 후보를 충분히 알리고 선전할

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확보해내는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연은 발굴된 여성후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들은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교육,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성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어 있어서 지방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았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문제들은 생활현장에서 누구보다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때에만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모아 담배자판기 금지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천 최순영 의원의 경우는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연은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여 후보진영별로 선정하는 과제에 대한 공동의 정책대안 마련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을 통한 여론홍보작업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도 '남녀 유권자 한마당'이라는 대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유권자뿐 아니라 남성유권자와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준비되고 있다.

다음으로 여연은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각종 요구를 담아내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로 자리잡기 위한 유권자의 역할, 올바른 주권행사방법 등을 선전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 공약개발 워크샵, 여성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적 관점에서 제기하여야 할 공동의 공약개발과 정책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학교급식 시설설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급식설비지원 조례제정 운동이 그것이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중심으로한 민간탁아소운동이 탁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방정부에 청원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이어 탁아조례제정 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나아가 후보진영별 요구를 수렴하여 광범한 자원봉사원을 조직하고 훈련, 교육하여 선거시기에 후보진영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범여성계가 결합되어 있는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통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여성공천 비율 20%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여론화와 압력활동을 펼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37명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중앙당 차원의 제도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정당 압력활동과 정당 여성국 및 관련 여성운동가, 전문가와의 전략

회의, 할당제 도입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동 등을 적극 조직할 예정이다.

생활정치의 정착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1995년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사업이 일정하게 성공한다면 한국의 여성운동은 일대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여성적 요구와 관련한 정책결정이 남성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바꿔내어 여성의 손으로 여성 관련 정책을 입안해냄으로써, 가장 낙후되고 보수적인 남성중심적 한국 정치문화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정치분야에서의 여성 차별 철폐는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을 지속시키는 문화적, 제도적 관행을 없애는 초석이 될 것이다.



여성적 요구와 관련한 정책결정이 남성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지금의 정치상황을 바꿔내어 여성의 손으로 여성관련 정책을 입안해 냄으로써, 가장 낙후되고 보수적인 남성중심적 한국정치문화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자 한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선거 이후 여연의 활동은 입안된 여성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내에 반영되고, 정착되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으로 모아질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의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 모임' 활동에서 보여지듯이 지역 여성의 생활상의 문제로 제기되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 교육 문제 등을 의회에서 제기하고, 그 해결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관철되도록 활동할 것이다.

이후 여연은 생활과 자치문제를 일상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갈 지역단위의 여성조직을 항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역의 여성정책 개발과 조직화 방식을 개발하고 생활자치운동을 담당할 지도력 훈련을 통해 지역의 여성운동조직이 주요한 운동 주체로 설 때, 생활의 일차적인 담당자로서 여성이 생활정치의 전면에 나설 때, 우리 한국의 여성지위 향상은 물론 한국의 정치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다. 더불어 정치가 생활의 도구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단 • 교육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표류하는 교육방송! 우리들 힘과 지혜로 지켜내야..

한 명 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EBS는 지난해 봄철 프로그램 개편 이후부터 재미와 교양을 겸비한 참신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여러 시청자 단체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과외채널' 또는 '재미있고 딱딱한 채널'로만 인식되어 왔던 EBS가 이렇게 사랑받는 채널로 변모해 가게 된 것은 내용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송일꾼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교육방송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다. 교육방송 직원들은 작년 12월 <교육방송 살리기 직원대책회의>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교육방송 중단에 대한 조합원 투표결과(365명 중 찬성 323명, 반대 33명, 무효 9명) 두번에 걸쳐 방송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교육방송의 KBS로의 통합안에 대해 방송계의 뜻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현재 교육방송이 개혁이나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살펴보자.

쥐꼬리 예산이 그 첫째 이유다. KBS 제2TV의 대하드라마 '인간의 땅'에 출연했던 왕년의 명배우 토니 커티스가 5

회분 촬영에 응해주고 받아간 출연료는 약 1억2천만원.

이 돈이면 EBS는 208편의 TV 프로그램이나 3,690편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교육방송 TV, 라디오의 1년치 제작비가 KBS나 MBC의 대하드라마 1편 제작비와 맞먹는다. 둘째는 만성적 인원부족이다. 열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 시행될 상업 케이블 TV쪽으로 인력의 10%가 넘는 50여명이 옮겨가 인력사정은 최악에 달했다.

세째는 교육방송의 위상문제다. 당초에 독립공영방송국으로 추진되었던 교육방송국이 방송의 전문성이 없는 교육부 산하에 자리잡으면서 문제는 뒤돌리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심의권을 쥐고 통제를 강화해 방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공보처는 교육방송을 옛날처럼 KBS에 통합시키고 KBS 2TV는 상업방송으로 팔아넘기려 한다.

정부는 지역상업방송들과 수십개의 CATV채널 허가남발로 상업성을 부추겨 국민을 퇴폐 저질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 몰아넣으려 한다. 지금도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TV에서 본 개그맨들의 바보놀음 흉내에 길들여져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수십개의 상업방송에서 쏟아져 나오는 외국의 저질 오락 폭력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릴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선 교육방송 하나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지금 EBS 직원들은 신설 상업방송의 60%에 지나지 않는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또한 상업방송으로부터 엄청난 스카웃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오직 교육방송의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신념 때문에 마지막 '무공해방송'인 교육방송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들은 방송매체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누가 죽어가는 교육방송을 살려낼 것인가? 방송의 진짜 주인은 본래 시청자인 우리 국민들이다. 우리들이 나서서 우리의 교육방송을 살려내야 한다. 이미 지난 9월에 50여개에 달하는 전국의 방송유관단체들과 민주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방송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전국의 시청자는 하나같이 나서서 교육방송의 공영화 입법청원 등 방송의 국민주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각자의 몫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알아봅시다

세계의 교육방송

세계의 유수한 방송사들 중 교육방송채널을 일부 살펴보면 BBC2(영국), NHK2(일본), PBS(미국), ARD(독일), UR(스웨덴)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이중 영국의 BBC2의 시청률은 8%선, 미국의 PBS는 4%선, 일본의 NHK2는 1%선이며, 한국의 교육방송(EBS)은 약 3%선으로 제작여건 대비 세계 최고의 시청률이다.

세계의 교육방송 중 가장 모범적인 곳은 BBC2이다. 제작비를 ITV의 65%수준에서 투입하여 높은 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는 전세계 교육방송에 대부분 수출된다. 미국이 유일하게 수출보다 많이 수입하는 프로그램이 PBS용 BBC2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BBC2의 제작 및 편성이 세계 최고의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교육관청이나 방송주무부처는 BBC2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없다. 그러나 시청률 1%에 지나지 않는 일본의 교육방송은 NHK내에서도 제작비나 인력, 장비 등 모든 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고 방송내용은 세계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일본 문부성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 시청자들이 외면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작년말(94년) 「폭력없는 텔레비전, 「재미와 교양의 결합」을 내걸고 출범한 프랑스 국영TV 「5라 생키엠」이 고급스런 내용과 편성전략으로 개국한지 약 두달만에 모범적인 교육방송으로 호평받고 있다. 다큐멘터리, 과담, 시사, 드라마, 영화,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시선을 붙잡는데 성공함으로써 「교육방송은 으레 재미 없다」는 편견을 간단히 깨고 있다.

교육학자 출신 방송인 장 마리 카다다가 사장인 「라 생키엠」이 짧은 기간내에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프랑스 정부와 문화계의 전폭적인 협조, 제작진의 프로그램 개발노력 등 삼박자가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특히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역사의 의미」, 유럽문화기행, 과학 및 인물 다큐멘터리, 청소년대상 토크쇼, 어린이 인형극 및 성인 시청자를 위한 직업교육, 정보프로그램 등이 다양하여 사회교육의 큰 몫을 해내고 있는데 시청자들의 호응이 아주 높다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방송은 현재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문제가 일본의 NHK2와 비슷하다. 이제 KBS로 통합되면 나머지 내부적 차별까지 일본의 경우와 같게 되리라고 방송계 뜻있는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생활과 협동의 참뜻을 알리고 싶습니다”

문 수 경 「함께가는 여성」 편집위원

아직까지 찬바람이 가라앉지 않은 날씨에 동지를 만나러 가는 길은 멀기도 하였다. 박영숙 기획실장님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생활협동조합 사업부를 찾아갔을 때 수없이 쏟아지는 주문전화로 모두들 정신없이 바쁜 모습이었다. 컴퓨터와 팩시밀리가 살아있음을 뽐내듯 끊임없이 기다란 자료를 토하고 있는 곳. 고소한 깨강정 냄새. 보기만 해도 장이 기우는 우리 먹거리들이 창고 가득 준비하다. 생산자의 생활과 소비자의 생활을 지켜내고자 애쓰는 젊은 일꾼들이 산지에서 물품을 적송해 와 단위조합에 공급하고 있는 생활과 협동의 현장에 들어선 느낌은 참 건강하다는 것이었다.

생활을 고민하면서 접하게 된 생활협동조합 사업부

듬직한 체구와 소탈한 말솜씨로 이야기를 풀어주는 양창욱 과장님은 부평 생활을 일구어내고 살찌운 경력을 지니고 있다.

“처음 부천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 트럭을 몰고 공급하려 다니다가 택야소에 맡겼던 아들을 데리고 남은 공급일을 할라치면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며며 울어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살림을 도맡아준 부인이 두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부딪쳤다. 취직을 고민하다가 운동성과 자신의 생활에 맞는 공간을 발견하는데 그곳이 바로 생활협동조합 사업부이다. 생활과 자신이 점점 커나갈 수 있는 좋은 출발이었기에 생활협동조합으로 들어온 건 그야말로 전 화워복이라고 말한다.

생활과 인연을 맺은 양창욱 과장은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대중 속에서 녹아들어 발로 뛰는 생활으로 바꾸어나가고자 중앙회 사업부 활동에 전념하였다. 94년 월평균 매출액 1억원에서, 올해는 월 1억 5천만원으로 연간 총 18억원 매출을 계획하는 당찬 포부도 갖고 있다.

일일상품과 우리밀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물자 개발이 별로 없어서 올해는 두가지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먼저 냉동·냉장식품을 일일상품으로 개발해 날마다 단위조합에 공급할 것입니다. 시설 마련을 위한 자금이 문제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중앙회다운 사업이 될 것이기에 4월내지 5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일일상품을 공급하려면 실무자 전체가 새벽에 출근해야만 하고 또 우리밀 판매를 맡아 관리하는 일도 사업부의 몫이 되는데 우리밀 판매는 경제적 이익을 주어 조합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많던 일을 겹겹이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물자 싱긋 웃으며 몸이 힘들어서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고. 단지 자신이 하



맛을 온몸으로 연구한 양과장

고 있는 일이 인정받지 못할 때 더 기운이 빠진다고 말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좌우명처럼 이야기하며 경영의 전문성 못지않게 활동에 있어서 헌신성을 강조한다.

올바른 생활협동운동을 위해 끌어주고 밀어주자

지금 생활협동조합 사업부는 단순한 공급기구를 넘어서 공동체운동을 펼치기 위해 중앙회 조직부를 지원하고 단위조합들을 앞에서 끌어주어야 한다. 양과장님은 실무자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고 싶어한다. 사업을 실천하는 데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단위조합 대부분이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고 실무자들이 생활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지적된다.

“생활의 이미지가 유기농산물 판매로 한정된다면 조합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지요. 무엇보다 협동의 이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별도의 생활이념을 가져야만 지역운동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테니까요.”

이제까지 쉽게 떠올리던 먹거리운동이라는 좁은 시각을 버리고 생활 제반을 사고할 때에만 시민운동, 단체운동과 연대하여 생활을 살찌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활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론과 방법론이 요구된다. 중앙회가 협동조합으로서 이 두가지를 올곧게 세워나가야만 생활의 희망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서울 마포 산동네에서 태어나서 줄곧 도시에서 살았지만 생활협동을 하고부터는 농촌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고 흙에 대한 경이감을 갖게 되었다는 양과장님. 그런 느낌으로 생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여섯 명의 실무자들과 함께 네 대의 자동차를 굴리며 올해도 분주하기 그지없다. 민우회 생활과도 서로 도우며 지금까지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설 수 있는 한해가 되자고 약속을 한다. 그래서 꼭 생활협회를 성사시켜내자는 양과장님의 바람이 우리 민우회의 바람과 다르지 않기에 더욱 든든한 동지로 삼아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95 민우회를 빛낼 바람, 바람, 바람들

진지함과 탄탄함이 가득... 분당지역모임의 김인선 회원

"김인선 씨는 보는 사람이면 100% 모나 보이지 않고 인상이 후덕해 좋다고 해요."

추천해주신 김현미 회원의 이야기다.

김인선(39) 회원은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창립초기부터 열심히 활동했던 이다. 그래서 민우회에는 '89년에 생협회원으로만 참여했다가 지난해에야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위낙 필요한 일이라 참교육 쪽 일을 계속해 오다가 분당으로 이사하고 보니 너무 거리가 멀어 지역 쪽 일로 바꾼 거예요. 사실 정회원에 가입하는 것도 좀 망설였어요. 너무 벌여만 놓는 것 같고, 제대로 중심잡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요."

김인선 회원에게는 이런 진지함과 탄탄함이 보였다.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충실해지는데 우선하고 있구나 하는.

분당지회의 특성을 들라면 회원을 끌어모아 생협활동을 하는 일은 무척 힘이 들지만 오히려 교육은 잘 된단다. 지금도 '역사공부' 'PET교육' '환경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호응도 높고 회원들도 만족하는 편이라고 한다. 가장 힘든 일을 물으니 집안일을 꼽았다. 집안일을 빨리빨리 해내는 편이 아니라 항상 어지러져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다. 다행히 남편(모니터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강명구 교수이다)이 아내의 일을 많이 이해해주며 덕을 본다고 한다.

"기존에 분당에 들어와 있는 다른 생협들이 많아 회원확보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생협회원들도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 여태 김현미 씨가 혼자 해온 셈이지요. 올해 이렇게 큰 짐을 맡았는데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일을 벌리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더 충실히 자리잡게 하는데 힘을 쓰려고 합니다."

김인선 씨의 목소리는 활기가 넘치면서도 야무졌다.

목소리가 참으로 따뜻한,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구로-영등포-양천 지회의 박미숙 회원

나중엔 되려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그렇게 끝없는 의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젊어 수월하게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아니었다. 박미숙(31)씨는 벌써 한참 전부터 민우회를 알고 있었다. 8년전 멀리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던 독서모임에서 소개를 해주어 「사무직여성」을 창간호부터 받아보았다. 그때는 미혼여성답게 남녀평등에 관한 기사에 흥미를 가졌었는데 91년 9월 결혼하면서 서울로 오게 되어 민우회의 주부분과를 찾아 제발로(?) 충청로 사무실을 찾아나섰다고.

갓난아일 데리고도 열심히었고, 이제 세웁이가 두 똥을 맞게 됐지만 더욱 열심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모여서 얘기하다보면 내가 겪고 있는 생활에서의 고민이나 남편과의 갈등도 다들 똑같이 경험하는 거구나 하는 위안도 얻고, 공동체를 꾸려 먹거리를 나눠먹고 공부도 하는 '같이하는 삶'에 보람도 느껴요."라고 처음 질문에 대답을 한다.

"회의요? 처음에만 해도 새로 이사한 장충동 생협사무실을 찾아가느라 한참 고생했거든요. 날은 춥고, 아이 손잡고 언덕을 오르내리자니 정말 눈물이 핑 돌던데요. 뭘 얻자고 이렇게 아이까지 혹사시키며 고생을 하나 해서요. 그리고 저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 특히 아이가 커서 여유있는 회원들이 활동을 안 하려고 하면 속상해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목소리가 따뜻한 박미숙 씨는 새로 문을 연 영등포-양천지역 사무실에서 올 한해 상근한다는 큰 임무에 기대반 책임반 마음이 벅차단다.



겸손하고도 야무진 새내기예요 교육조직부 박숙희 간사

사회에 첫발을 딛은 신참내기인 제가 민우회에 들어온 것은 하늘의 축복으로 여길만큼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때 배운 겸손한 자세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역시 겸손한 자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민우회 선배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다 배울 때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닐 생각이구요. 이번 달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민우회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야무진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소리없는 안개처럼 그러나 돌풍으로 서겠습니다 생활협동사업부 이현아 간사

봄이 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도 새로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차갑지만 높은 온기가 흐르는 봄바람에 휩쓸려 저 이현아! 새내기로서 지금 막 민우회의 문턱에 들어서고자 합니다.

한국여성운동의 가장 큰 흐름을 주도했던 여성민우회의 존재를 짧은 대학생활에서 알고난 후 막연한 호기심과 여성으로서의 동질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가까운 자리에서 볼 수 있다니 참 좋군요. 정보를 통해만 알던 생활협동사업, 업무과외와 창고 물품확인으로 정신없지만 선배들의 따뜻함에 결코 낯선 곳이 아님을 알았거든요. 물론 제가 이곳 생활에 들어와 일대 혁신을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내밀한 마음속의 기대는 더 클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에도 따뜻한 정이 흐르는 회원과 실무자와의 관계를 더욱 끈끈한 정으로 붙여놓고자 함이 사실 고백하자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농산물 지킴이로서 우리 농산물운동이 앞으로 소리없는 안개처럼 퍼져나가길 소원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화이팅! 생활협동사업소 화이팅! 민우회 새내기 화이팅!

‘그저 이것이 나의 일이구나’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가족과 성 상담소’ 송주영 간사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전화에서 2년 동안 상담 자원봉사를 한 뒤 민우회에서 실시한 상담원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민우회에 ‘가족과 성 상담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와 딱 맞겠구나 싶은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저는 가족학을 전공했거든요) 젊음과 열정을 바쳐 평생을 일할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일하면서 ‘그저 이것이 나의 일이구나’ 싶어 자연스럽게 편한 느낌을 갖고 있구요. 이곳에서 가족상담의 전

문가가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어서 도움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민우회 안에 영원한 제자리를... 홍보부 조용미 간사

총무와 마찬가지로 저도 새내기주부이구요. 대학시절부터 여성문제에 대해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졸업 후에도 여성문제를 제대로 공부하고자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여성분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구요. 출판사와 잡지사에 잠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이 단지 돈벌이로 전락하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나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민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민우회를 ‘내자리’로 삼아 이제부터 힘차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들 속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함께가는 여성’과 공공대고 싶은, 겸양고 눈 큰 새내기 ‘함께가는 여성’ 편집실 문수경 간사

겉보기와는 달리 겁이 많고 말수도 적으며(?) 술도 못마십니다.

민우회에 오기 전에 이곳저곳에서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공공대던 경험이 있구요. 여러가지 재주가 있는데, 먼저 맛있는 과자 고르기, 가장 힘 안들이고 빨리 걷기 그리고 머리에 무거운 짐 이기 등등이니 많이 지켜봐 주세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함께가는 여성’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 민우회의 일꾼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싶습니다.

저를 ‘똥글이 살림박사’로 불러주세요 정은숙 총무

- 성격 : 활발하며 덜렁이가 조금 있음.
가끔은 우울해하기도 함.
- 취미 : 컴퓨터게임, 비디오감상
- 별명 : 똥글이, 똥뎡이, 칠봉, 돼지상병 등 신체관련 별명 다수 있음(개인적으로 똥글이 별명을 좋아함).
- 인간관계 : 잘 지내는 편임.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음
- 핸디캡 : 외적 콤플렉스가 약간 있는 관계로 성격이 좋아보이려고 노력함.
- 자랑거리 : 이곳저곳에서 자료집이나 홍보물을 다수 제작해 본 경험이 있음. 잘은 못하나 대충 훑내는 거의 낼 수 있음.
- 희망사항 몇 개 : 돈관리 잘해서 민우회의 살림박사 되기.
민우회 상근자들 시집보내기. 앞날을 계속 고민하기.
- 가장 중요한 점 : 결혼한지 4개월된 초보주부임.

어여쁘신 길벗님네, 따스하고도 힘찬 새해 맞으세요

분당 지역모임

1월 14일 남한산성 역사기행에서 영하 10℃의 추운 날씨에도 50명(아이들 포함)이 모여 눈덮힌 겨울산을 올랐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지회 회원들의 애정과 사랑이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분당지역모임 대표를 맡게 된 김인선입니다. 저희 지역모임은 이제 겨울마를 시작한 막내둥이입니다. 처음 태어나서 회원을 늘리기 위해 머리 맞대고 의견을 짜내던 일, 첫 민우여성 학교를 마치고 지치고 힘들어서 실망했던 일, 우리들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 밤새도록 얘기 나누며 정을 쌓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일들에 힘입어서 지금은 하루 전날 불시의 연락에도 운영위원회는 항상 출석률 100%를 자랑하며 더 자주 보고 싶다고 1주일에 한번씩 만나자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김현미 전 대표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올해 저희 지회의 제일 큰 목표는 생협회원을 50명 더 늘리는 것입니다. 회원확보와 더불어 기존 회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체 간담회도 자주 할 생각이며 민우여성학교를 한 번 열고 장터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PET모임, 역사교실, 환경탐도 계속될 것이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교육을 위해 이미 활동중인 다른 지회의 도움도 받아서 바른 의정탐도 띄울 예정입니다.

올 한해 동안 이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해 벌써부터 어깨가 무겁고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운영위원들간의 역할분담이 잘 되고 있고 모든 회원들의 열심히 뛰는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감도 얻고 힘이 생깁니다.

자, 회원 여러분! 1995년 한해는 우리 모두 자주 만나 더 친해지고 재미있게 일해서 젊어집니다.

김인선 지회 대표

노원 — 도봉 지회

성황리에 개강했던 '어린이 성교육' '살아있는 글쓰기 교실' '살아있는 그림그리기 교실'을 2월에 종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회 사무실은 다음 행사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 23일 제3회 역사기행을 떠났습니다. 동학농민전쟁 격전지와 지리산 일대에 이어 '강화도 새로 보기'를 합니다. 민족 주체성이 살아있는 곳, 한때 역사의 중심부에서 꿈틀거렸던 강화도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무척 기대됩니다.

3월은 더 바쁜 달이 될 것입니다. 세째주부터 11기 민우여성학교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회교육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성교육 강좌'는 오숙희, 이근덕, 구성애, 지은희 선생님을 모시고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특히 자녀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분에게 유익한 강좌입니다.

또한 교양교육으로 '자녀글쓰기 지도' '부모역할훈련' '기초 일어' 강좌와 어린이 강좌로는 '어린이 글쓰기 교실'을 마련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노원-도봉지회 환경탐에서 발간했던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더 보강된 형태로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니 사서 보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순 지회 운영위원

강남 — 서초 지회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항상 희망을 갖게 합니다. 회원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우리 지회에도 밝은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회의 희망은 새로운 공동체와 회원이 많이 생기고, 회원들간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 회원 13명 정도가 모여 계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친밀감을 높이고 민우회에 대한 소속감을 다져 볼 생각입니다.

회원들이 보고 싶은 분은 계원이 아니더라도 모임에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점심도 대접할게요.

올해 우리 지회가 하려고 하는 일은 우선 2~3월에 걸쳐 각 공동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느꼈던 고충과 즐거움, 생협에 대한 의견 등을 이야기해 봅시다.

4월에 열릴 '3기 민우여성학교'와 가을에 가질 '환경장터모임'에 많은 도움과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모임이 있을 때는 꼭 참석해 주세요.

회원 여러분의 참석! 여기서부터 우리 지회의 발전이 시작됩니다.

김수희 지회 대표

서대문 — 은평 지회

창 문을 활짝 열어 묵은 먼지를 털어 내고 맑은 공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활기찬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알찬 계획을 다짐하고 실천하는데 조금도 어긋남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회의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홍제동 한양아파트 103동과 104동에 두 공동체가 가입을 해서 우리 회원이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좋은 뜻으로 또한 민우회의 하는 일들이 좋아서 가입하셨다는 그분들의 열의에 기대를 합니다.

2월 13일에는 글쓰기 교실 책을 출간하신 최종순 선생님을 모시고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자녀의 글쓰기 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님의 자세가 필요하며 언제나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부모님이길 당부하였습니다.

92년부터 계속해오는 생활도자기반이 제 10기 수강생을 받습니다. 3월 9일부터 시작하는 생활도자기반은 벌써 4년째를 맞이합니다. 단순한 작품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흙을 주무르고 만지는 작업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안 순 금 지회 운영위원

구로 — 영등포 — 양천 지회

구 로-영등포-양천 지회 회원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지회 사무실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간이 생기면, 모든 얘기가 그곳으로 모이지고 언제든지 쉴 수 있으며, 늘 빅 이벤트가 생길 거라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가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모아져, 목동 7단지 전명여고 건너편 조그만 자리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랑방, 그리고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부엌까지 만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몇몇 집기들을 기증받으자 합니다. 혹시 집에서 사용 안하고 있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지 창고를 한번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집는 상(회의탁자용), 카세트, 책장(생협물품 전시대용), VTR, TV(20인

치 이상 큰 것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스레인지, 벽시계, 거울, 컴퓨터, 신발장 등 지회 사무실을 꾸밀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무실 탄생에 힘을 더하여, 더욱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부 대상으로는 자녀교육강좌, 수지침, 뜸, 국민학생 대상으로 글쓰기지도, 국악교실, 창의력개발 프로그램, 과학 실험교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회 사무실로 많은 문의 바랍니다. (607-9526)

아직 미숙하기만한 저희 지회의 출발을 지켜봐 주시고 용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기금모금은 사무실 확장과 발전을 위해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박 미 숙 지회 운영위원

1월 공동체별 매출순위입니다

순위	공동체 (봉사자)		매출금액
1	염창 우성아파트	(정봉순)	1,632,700
2	낙성대 교수아파트	(오현숙)	1,489,850
3	서대문 지회	(안순금)	1,195,700
4	분당 전영아파트	(김현미)	1,156,500
5	중계 롯데아파트	(최경신)	1,109,100
6	상계 주공9단지	(정경림)	1,087,700
7	사당 대림아파트	(남혜경)	1,028,300
8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김희진)	1,027,300
9	중계 주공4단지	(양복인)	984,800
10	방학 신동아9단지	(김태애)	980,800
11	장미원아파트	(임상희)	938,100
12	홍제 청구아파트	(김은하)	902,100
13	상계 한신아파트	(김연우)	898,500
14	방학 신동아1단지	(박용숙)	895,100

회원이야기

내가 살고있는 분당신도시는 크게 나누는 삶, 누리는 삶, 빈곤한 삶으로 나뉘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분류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서야 기본적인 도시형성이 자리잡고 교육, 문화, 행정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주민정서의 흐름은 누리는 삶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상인들이 일조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입주초기부터 상인들의 알뜰한 상술에 넘어가 "커텐은 외제가 최고예요! 새집으로 이사하면 당연히 가구도 새것으로 바꾸어야지요, 새집이 헌집같잖아요"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심지어는 구경하는 집까지 차려놓고 이태리 바닥재, 고급 도배지, 불필요한 내부 개조로 과소비 충동을 부추긴다. 어느분이 우스갯소리로 "분당으로 이사해서 하룻밤 자고나니 중산층이 되었어요"하는 말이 괜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이웃과의 경쟁심리로 말미암아 생활이 정착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사치스런 소비문화, 지적 허영심, 자녀 과외열풍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모습을 주부의 눈으로 장황하게 다가가는 것은 베타타운 신도시 성격상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특히 주부들이 도시를 지키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뚜렷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선긋기를 좋아한다. 평형별, 영세민 아파트촌 등 쉽게도 선을 긋는다.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당 인구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소리를 내지않고 있다. 문화적 소외감, 자녀 문제에 있어도 쉽게 불량 청소년으로 치부당해 학교 배정도 민영 따로, 임대촌 따로를 외치는 허영 엄마들에게 마냥 침묵하고 있다.

가난도 죄인가? 게을러서인가! 돈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해서인가!

모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값싼 노동력에 희생된 사람, 가진 자만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빈곤

누리는 삶, 빈곤한 삶, 나눔의 삶

최복희
분당지역모임 회원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부(여성)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우회 회원들의 활동은 가히 혁명적이다. 몇 안되는 회원이지만 모두 발벗고 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못된 분당의 정서를 바꾸어 내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주부의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생협운동은 공동체생활의 실현, 곧 '나눔의 삶'의 실현이다.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소비자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고 공동반을 조직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것은 단순히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회원들은 아껴 쓰고, 함께 나눠 쓰고 다시 되물림해서 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그리고도 남는 것은 어떻게 잘버려야할까를 고민한다. 버리는 문제는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도 하지만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으로 우유제조업자들의 폴리에틸렌 용기 사용 중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일도 함께 하였다.

또한 지배이데올로기 교육을 바꾸기 위한 부모역할 훈련도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개방적인 성문화풍조로 조속해지는 아이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성교육자로서 부모가 지켜야할 성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쉽지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부들의 운동이야말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나눔의 삶의 실현인 것이다. 



민우회 생협의 새 품목을 소개합니다

딸기(8,800원/1.2kg, 1상자) 고령 광해석 님
무농약 딸기로 물에 씻지 않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아니! 민우회 생협도
생선류 공급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네!!

옥돔(24,000원/1.5kg, 8~10마리) 제주도 활어수산
제주도 해풍으로 말려 옥돔의 담백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냉동보관하세요.



건고동어(5,000원/2마리, 800g 이상) 제주도 활어수산
제주도 해풍으로 말렸는데 무게에서도 느껴지듯이 몸통
이 도톰하고 적당한 간이 입맛을 돋우어 줍니다.
냉동보관하세요.

유자차(10,000/1.2kg, 반되병) 서대문-은평 지회
무농약 유자로 직접 손으로 썰어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도 좋지만 냉장보관하셨다가 여름에 시원하게
냉주스로 드시면 좋은 별미이고, 손님접대로도 훌륭합니다.

고춧가루(11,000/600g) 생협 제조
무농약 고추(화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는 고춧가루와 태양초 고춧가루도 있습니다.



옹기 2호(14,000원/5리터), 옹기 3호(22,000원/8리터)
옹기 4호(30,000원/13리터), 옹기 5호(40,000원/25리터)
옹기 6호(50,000원/34리터), 옹기 7호(60,000원/45리터)
인월요업
무공해 옹기로 간장단지, 고추장 단지, 김치독으로 좋습니
다. 먼저 공급된 물항아리(13리터)크기인 직경 27cm×높
이 33cm를 연상해 보면서 크기를 기준삼아 보세요.
(공급기간은 2월~3월 초)

안녕하세요? 민우회 생협입니다

꿈이 있고 감동이 숨쉬는 삶을 위해...

이혜라 생활협동사업부 부장



꿈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생협활동이 가능할까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 농촌도 살리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지구환경의 파수꾼으로 살고 싶은 2,000여 우리 회원들의 꿈이 오늘의 생협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들의 꿈과 희망, 회의와 좌절, 피곤함과 속상함, 노력과 땀...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하면서 더 많은 주부들과(물론 남성 동지들과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회마다 생협지부가 생기고 멋지고 깨끗한 생협빌딩에 나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교육, 문화활동에 참가하고 지방의회에 나가 우리 손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또 경치 좋고 한적한 생산지에 생협별장도 짓고, 가공공장에서 위생적으로 김치와 밑반찬을 생산하는... 생활 전반에 기여하는 생협의 꿈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은 생협스타일로(?) 살겠다는, 감동할 줄 아는 우리 회원들의 삶의 선택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생협의 주인은 바로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회원 여러분! 생산자, 실무자와 함께 빛나는 일년이 되도록 힘차게 나갑시다.

아름다움 그 자체로...

이경숙 간사



내가 바라는 생협- '잘 사면 이웃 하나 열 사촌 안부럽다'는 말이 실감나는 회원. 지역문제(환경, 교육, 쓰레기 등)에 관심을 갖고 호시탐탐 감시하는 회원. 날씨에 민감한 회원(가뭄, 폭염, 한파) 농산물 작황 때문에, 생산지나 생협의 경조사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회원(홍성차량 교통사고, 한파로 인한 김장배추 손실, 생협의 유일한 처녀 시집가는 날의 축하 등). 이런 곳이 민우회 생협입니다.

'95년에는 더욱 더 생산자, 생협, 소비자가 인적 결합체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생협을 만들고 싶어요.

깨어지지 않거든 비워라

최영만 공급기사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나는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깨어지지 않거든 비워라.
삶의 관념은 모두 다르다.
허나 텅빈 우리는 하나의 관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영-

민우회 생활협동사업부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다섯달째로 접어드니 시간이 참으로 빠릅니다. 어설프게 하는데로만 따라가던 시간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날들로 바꾸어 일을 하리라. 지난날의 계획을 늦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현재에 저는 새로운 날들을 기약합니다. 저는 스스로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현재를 만들어 좀더 인간적이고도 즐겁고 재미있는 생협이 되도록 함께 하려 합니다.

저를 보세요 따스한 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윤현실 간사



95년 돼지해가 벌써 두달째!
돼지띠인 저의 통통한 볼을 보면 그
야말로 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새해와 함께 제게 맡겨진 일도
만만치 않은 새일인데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군요. 철저한 계획과
노력으로 업무에 임하며 소비자 생산자의 가운데 역할을 충실
히 하고, 서로간에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는 다리 구실을 하고 싶
습니다. 소비자=생협=생산자의 삼위일체를 지향해야겠지요.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해야지, 끝! 봄이 오니까...

생협을 살찌우는 최전방에 서서 ...

김창용 공급기사



올해년 새해는 밝았습니다.
생협의 최전방에서 공급에 전념하며
회원 여러분들께서 생협에 대한 바람과
질타를 함께 주시고 공급하는 실무자들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 힘
을 주시고 어려움이 다소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도착했을 때 아래
층 현관에서 물건을 인수하셨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같이하고 생협이 살찌는
올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한발 가까이 다가가는 일꾼으로 ...

김현미 간사

생협은 정성스럽게 만든 물자들이 있어 좋고 그 물자를 준비한
훌륭한 생산자들과의 교류가 있어 더욱 감동스럽습니다. 또한 생
협물품을 소비해 주는 훌륭한 회원들이 있기에 더욱 흐뭇한 곳입
니다. 그동안은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
를 했었는데 올해는 새롭게 회원들과
더욱더 친해지는 생협의 일환으로 홍보
와 회원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와 살기좋은 환경
을 생각하며 회원들께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고충을 덜어주는 실무자가 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이혜라 생협부장님께 민우회 생협의 초창기 멤버로
열심히 일했고, 약간의 휴식과 일본 생협연수를 마치고
다시 올해부터 생협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포부가
큽니다. 생협 실무자들에게 수시로 앞으로의 생협 구상
을 말해주는데, 그 모습 또한 진지합니다. 나이보다 젊
게 보이는 매력과 생협을 사랑하는 마음, 솔직한 표현
력, 꼼꼼한 일처리, 민우회 생협의 든든한 일꾼입니다.
(김현미)

김현미님께 올해 4살 되는 귀여운 아들 하나와 시부
모님을 모시고 사는 현미 씨는 생협내에서 가장 친절하
고 상냥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미시족입니다. 일 욕
심도 많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은 현미 씨! 올해는
예쁜 딸 하나 낳을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어떨까요?(적어
도 둘은 낳아야 된다는 것이 내 신조임) (이경숙)

윤현실님께 여성 실무자로 생협의 막동이 격인 포
근하며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하며 토속한 시골 뚝배
기 장맛처럼 감칠맛나고 훈내음이 나는 순박한 초년생
주부, 또한 정이 많고 눈물이 많은 여자, 생협에 꼭 필
요한 사람, 그러나 열악한 근무조건,

회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창용)

김창용님께 김창용님을 처음 만난 것이 91년이니까
벌써 5년이 지났군요. 처음엔 공급 물량이 넘칠 때 보조
차량으로 일을 시작하셨는데 생협일이 너무 매력적이라
보니 그만 쪽 빠지셨습니다.

지금은 물품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 가장 오
래된 실무자 중 한분입니다. 서글서글한 웃음의 잘생긴
얼굴이라 생협의 가오마담하셔도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저뿐만이 아니겠조?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혜라)

최영만님께 "안녕하세요? 최영만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촌놈이에요!" 생협맨 최영만 씨가 자칭하는 말이지
요, 사실 홍성에서 갓올라온 촌놈이래요. 하지만 유명한
풀무학교의 창업생(졸업생)으로서 큰 꿈을 안고 서울(민
우회 생협)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급일을 담당하
고 있지만 여기서 좀더 배우고 성숙해서 훌륭한 유기농
을 이끌어갈 일꾼이 될 거랍니다.

각지역 회원들에게 귀염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곳
에서는 고정적으로 식사 대접까지 받는답니다. 자랑이
대단하조? 앞으로 좀더 사랑해주시고 생협에 불평과 칭
찬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윤현실)

알림마당

교육방송 진단 제1차 시민공청회 '교육방송! 이렇게 해야 한다' 가 열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 방송 바로세우기 시청자 연대회의와 참교육 학부모회, 참교육 시민모임 등은 2월 27일 종로성당에서 최근 교육방송 문제와 관련하여 제1차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송 바로세우기 시청자연대회의의 정지석 집행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다시 과거와 같이 KBS로 EBS를 통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들의 이익에 전혀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비판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시민 공청회에서는 민우회 모니터위원회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에서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결과보고 및 바람직한 역할'을 중심으로 주요발제를 담당할 예정이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민우회 생협 사무실 집들이를 하였습니다

장충동에 새롭게 단장한 생협사무실과 창고가 궁금하실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18일(토) 오후 1시에 생협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떡이며 음식을 주접하게 차리고 생협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에서는 모두들 돼지머리에 돈을 꽃으며 복을 바라는 절을 올렸답니다. 이웃에서도 찾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생협관련 활동가들, 지회 회원님들은 물론 민우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멋진 집들이가 되었습니다.



구로-양천 지회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노원-도봉 지회, 서대문-은평 지회에 이어 드디어 구로-양천 지회도 아담한 사무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간 마련이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더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놀라운 일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필요한 몇몇 집기들을 기증받고자 하고 있으니 모두들 축하와 함께 집에서 안쓰고 있는 물건들을 선물로 기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노원-도봉 지회의 환경팀에서 만들어낸 자료집이 한울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출판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많은 홍보를 통해 베스트셀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민우회에서 새로운 각으로 일하실 회원님들을 소개드립니다

3월에 개소를 앞둔 「가족과 성 상담소」 소장에 양혜경 회원(전 서대문-은평 지회 대표)이 오시게 되었구요. 구로-양천 지회는 이성미 회원(전 교육조직부장), 서대문-은평 지회는 홍영주 회원이, 분당 지역모임은 김인선 회원께서 새로 지회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님들 열심히 밀어드리면서 올 한해도 무럭무럭 커나가는 민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지회별 회장단 간담회가 있습니다

공동대표들과 함께 지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유대를 다지는 자리로 편의상 지회별로 실시되오니 다음 일정을 참조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회	일정	장소	문의
강남-서초	3.12(수)	추후공고	572-6741
구로-양천	3.17(금)	지회사무실	607-9526
노원-도봉	추후공고	지회사무실	999-9221
서대문-은평	2.27(월)	지회사무실	732-7325
분당	2.27(화)	추후공고	0342-701-8983

'3.8 세계 여성대회 기념 한국여성대회' 열려

3월 12일 일요일 2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시간제노동의 실태와 정책방향' 심포지움 열립니다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시간제노동자 특히 여성 시간제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심화, 노동기본권의 침해, 노동조합의 약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민우회에서는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과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때 : 1995년 2월 28일(화) 오후 2~6시

곳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733-7011

내용 : 주제발표 「시간제 노동의 실태와 정책방향」

약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정책건의서 채택